

전라도 정도 천년 **광주·전남, 세계유산으로 다시 날자**

<11>베트남 호이안 올드타운



19세기 옛 도시의 광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호이안 올드타운은 대표적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사진은 호이안 올드타운 거리.

베트남 호이안시=박석호기자 haitai2000@naver.com

하롱베이, 풍나 계방 국립공원, 후에 유적지 집중 지대, 미션 유적, 호이안 고도시, 하노이 탕롱 황성 중앙부, 호 왕조 성채. 베트남이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자연유산들이다. 이 중에서 최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세계유산이 있다. 바로 호이안 고도시(올드타운).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다낭에서 자동차로 40여분을 가면 호이안을 만날 수 있다. 19세기 옛 도시의 광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호이안 올드타운은 대표적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취재기간 내내 이 곳은 간간히 비가 내린 가운데도 전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였다. 한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서양 관광객들은 낮에는 올드타운 골목을 따라 10가지 유형의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다양한 건축 유적을 감상했고, 밤에는 형형색색의 흥등과 유등이 걸린 밤거리를 즐겼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호이안 한국문화의 날’ 행사가 열려 한국과 호이안이 하나가 됐다.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사람이 살고 있는 유산’

19세기 옛 도시 광경과 역사적 건축물 고스란히 간직 중국과 서양 등 세계 각국 문화 혼재된 독특한 분위기

한해 평균 방문객 350만명...한국 관광객 40만명 달해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배후지로 유산경험 확산 노력 외부세력 유입 막기 위해 소유주 복원 지자체 지원도

◆호이안 올드타운은 어떤 곳

호이안은 팜남성 해안평야에 자리잡은 투본 강에 위치한 옛 도시로, 다낭시에서 남쪽으로 30km정도 떨어져 있다.

호이안은 국제시장에서 람판, 파이포, 호아이 포, 호이안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180년전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호이안 올드타운은 199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호이안 올드타운의 유산 면적은 30ha이고 올드타운을 둘러싼 완충지역은 280ha에 달한다.

호이안은 15세기-19세기에 건설된 동남아시아 무역항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국제 무역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 번성했지만 세기말 베트남 해안지역에서 다낭을 비롯한 다른 여러 항구들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적인 침체는 호이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

베트남의 다른 도시와 달리 초기 모습들이 놀라울 정도로 훼손되지 않았고 원형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끼와 식물이 뒤덮여 있는 음양 기와와 회색 곰팡이가 든 벽, 희귀한 동물이나 옛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 그림 등은 오랜 시간의 흔적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특히 이 도시의 건축물은 베트남 토착 문화와 외국 문화가 결합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다. 중국과 일본인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인들도

활발히 왕래하면서 여러 문화들이 혼재된 독특한 분위기를 띠었다.

◆어떤 세계유산들이 있나

호이안 올드타운은 투본강의 북쪽 제방 위에 건설됐다.

강줄기를 따라 동서 방향으로 도로가 하나 나 있고, 강과 나란히 놓인 도로가 3개 더 있다. 이 도로들은 다른 도로나 골목과 직각으로 교차한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축물들은 전통적인 유형의 집을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일렬로 늘어서 있어 관광객들이 찾기가 쉽다. 10가지 유형의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 유적이 1천여개 이상 남아 있다.

건축물은 주로 1층 상가와 2층 가옥으로 된 주택과 탐 및 사원, 고대 현자나 촌락 설립자 또는 전설적인 장인을 경배하기 위한 회합 장소 등 항구 도시답게 종교와 관련이 깊은 건축물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올드타운 입구에는 목조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중국인들이, 왼쪽은 일본인들이 생활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인들은 거의 떠났고 중국인들만 남아 있다.

건축물들은 대부분 목조 건물이라는 특징이 있다.

목조 건축에는 베트남의 전통적인 디자인과 다른 나라, 특히 무역을 위해 정착해 자신들의 고유한 디자인으로 집과 회합장소 건물 등을 지은 중국과 일본의 건축 양식이 있다.

호이안 올드타운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 보면 전통 건축물과 가옥, 공예품 등 베트남의 다양한 옛 모



관광객들이 형형색색의 흥등과 유등이 걸린 호이안 올드타운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다.

습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다.

베트남 호이안시 관계자는 “호이안에서는 아오자이를 입고 베트남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원형 그대로 보존된 다양한 세계유산을 감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이안의 차별화된 보존과 관리

호이안 올드타운은 등재 기준인 오랜 시간 국제 무역 항에서 융합된 여러 문화를 만나 볼 수 있고, 전통적인 아시아 무역항이 잘 보존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다른 세계유산과 달리 지금도 올드타운 안에

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장사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유산’이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호이안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최우선시한다.

호이안시 관계자는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호이안 고대도시 및 주변 이해관계자인 지역사회와 마을간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기념품과 유산 주택의 추가 복원에 관광수입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유산 배후지에 유산 경험을 다양화할 새

로운 명소를 개발해 급증하는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한편 주변 지역사회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역사적인 건축물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사회와 마을의 유산 보존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호이안 올드타운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전세계인들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 가 됐다.

호이안시에 따르면 올드타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호이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해 평균 방문객은 350만명에 달한다. 특히 올 1월부터 9월까지 한국관광객 40만명이 방문했다.

투본강 위에서 전통 조각배를 타고 즐기는 관광객들이 넘치고 밤이 되면 골목을 따라 있는 걸려 있는 형형색색의 흥등 유등의 아름다운 불빛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다.

인근의 떠들석한 야시장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서울에서 가족과 온 관광객 이모(47)씨는 “베트남 하면 관광지인 다낭과 수도인 호치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곳이 있을줄을 몰랐다”며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잘 관리되고 보존돼 있는데, 주민들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인지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호이안시 관계자는 “개인 소유자들이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복원시에는 유산 가치와 소유주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부 세력이 세계유산을 사는 것을 막고 거주민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시 정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유주의 건물을 매입해 준다. 적절한 임대료만 내면 전 소유주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호이안시=박석호기자 haitai2000@naver.com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유산 발전 위해 노력”

시 정부와 주민들 힘 합쳐 옛 건축물 보존·관리 세계유산 등재 후 세계적인 여행 중심지로 부상

버풍 베트남 호이안시 문화체육센터장

“호이안시와 주민들은 힘을 합쳐 호이안 올드타운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20년 동안 보이는 건축물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는 예술 등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호이안시 버풍 문화체육센터장은 호이안시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유산에는 2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호이안시에는 500년전의 항구와 오래된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200년 전에 세워진 주택 등 건축물들이

원형대로 잘 보존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버풍 센터장은 “호이안 올드타운은 시간으로 따지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세계유산과 달리 그타운 안에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장사를 하는 등 생활을 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며 “베트남의 다른 세계유산들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버풍 센터장은 호이안 올드타운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 “세계유산에 포함된 건축물에서 살면서 상점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소유자들의 보존 의식이 다른 곳에 비해 높다”며 “자기 집은 스스로 잘 보존하지만 자연재해 등으로 크게 파손된 경우에는 호이안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호이안시는 올드타운 입장료 수입 등을 세계유산 건축물의 보존과 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버풍 센터장은 “호이안 올드타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호이안은 세계적인 여행 중심지로 부상했다”며 “호이안 시민이 10만명 정도 인데, 1년에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은 대략 35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버풍 센터장은 “최근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올 1월부터 9월까지 40만명이 방문해 올해 45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한국관광객 55만 명 정도를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이안시는 세계유산인 올드타운을 등재 당시와 똑같이 유지하면서 문화 등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버풍 센터장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20년 동안 건축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보이는 건축물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한국의 판소리나 같은 민요와 게임 등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버풍 센터장은 “한국을 방문할 당시 가이드들이 교육을 정말로 잘 받았다는 것을 느꼈다”며 “호이안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버풍 센터장은 “호이안시는 한국의 안동, 울산 등과 교류를 하고 있다”며 “여러 나라와 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호이안 올드타운을 더욱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호이안시=박석호기자 haitai2000@naver.com

